

8면



베트남 국제병원 - 진입은 쉬웠고 실패는 천천히 쌓였다



58억톤의 땅에서 드디어 잉곳이 나왔다

2026년 7월 26일, 람동성 년꼬 산업단지에서 베트남 최초의 알루미늄 잉곳이 출하됐다. 순도 99.71%의 잉곳 한 덩어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세계 2위 보크사이트 매장량(58억톤)을 보유하고도 11년간 제련소 없이 원료를 수출하고 완성 금속을 수입하던 나라가,...

3면



오피스텔(Officetel)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회색지대

2015년경 호찌민시에서 빈홈즈(Vinhomes)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내놓았다. 이름하여 오피스텔(Officetel). 주거와 사무소 기능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콘셉트였다. 한국에서 먼저 정착한 개념을 베트남 시장에 이식한 것으로,...

10면



므엉(Mường)족 약초로 살고 약초로 고쳤다

하노이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두 시간쯤 달리면 호아빈(Hòa Bình)성 산골짜기가 시작된다. 구불구불한 산길 옆으로 고상 가옥이 보이고, 논 옆에 쪽빛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일한다. 므엉(Mường)족이다. ...

17면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금융은 신한이
책임
지겠습니다



실시간 입금안내

계좌 입금 즉시
스피커로 입금 내용 안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일출금 계좌에
최대 연 4.5% 이자 제공



스마트 결제 POS

한국어 지원 POS 제공
및 최저 카드 수수료 혜택



매장관리 서비스

여러 매장을 SOL App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SOL 앱 다운로드
QR 스캔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58억톤의 땅에서 드디어 잉곳이 나왔다

베트남 첫 알루미늄 전해 제련소 - 11년의 의미와 보크사이트 자원 가치 평가

2026년 7월 26일, 람동성 년고 산업단지에서 베트남 최초의 알루미늄 잉곳이 출하됐다. 순도 99.71%의 잉곳 한 덩어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세계 2위 보크사이트 매장량(58억톤)을 보유하고도 11년간 제련소 없이 원료를 수출하고 완성 금속을 수입하던 나라가, 마침내 그 순환의 고리를 끊은 것이다. 이 분석 자료를 통해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살펴본다.

베트남 보크사이트 매장량 (USGS 2025)	다능 제련소 1단계 생산능력	베트남 알루미늄 연간 수입 (2022)	알루미나 수출가 vs 알루미늄 수입가 (2024)
58억톤 세계 2위 기니(74억톤)에 이어 2위 세계 전체 320억톤의 약 18%	연 15만톤 2026년말 30만톤 2027년 1분기 45만톤 목표 총투자 28조동 (\$10.7억~약1.6조원)	\$54억9,000만 약 8.0조원 원료 보유국이 완 성품 수입 2026년말 수입 대 체 본격화	\$670/톤 수출 \$1,059/톤 수입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구조가 이번엔 바뀌 기 시작

① 오랜 역설 - 세계 2위 보크사이트 보유국이 알루미늄을 수입한 이유

베트남이 세계 2위의 보크사이트 매장량(USGS 2025년 기준 58억톤)을 보유하면서도 왜 알루미늄을 수입해야 했는가. 이 질문에는 자원 개발의 구조적 어려움이 담겨 있다. 보크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쓸모 없는 붉은 흙이다.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로 1차 정제하고, 다시 전기분해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알루미늄 금속이 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된다. 알루미늄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약 14,000~16,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이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과 자본이다. 전해 제련은 고도의 야금 기술을 요구한다. 설계·건설·운영 모두 전문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번 제련소에도 500킬로암페어(kA) 전해조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최신 대용량 기술이다. 베트남이 이 기술을 자체 보유하기까지 11년이 걸린 배경이다.

세 번째는 환경 문제다. 보크사이트 채굴과 알루미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붉은 진흙(Red Mud·레드 머드)은 독성 폐기물이다. 중부 고원 지대의 생태계 보호 요구와 대규모 채굴 사이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졌다. 과학자·환경 단체·지역 주민의 반발을 조율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세 가지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11년간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아이러니가 지속됐다.

② 보크사이트 58억톤의 가치 - 숫자로 읽는 잠재력과 현실

58억톤이라는 수치는 얼마나 큰가. 현재 베트남의 연간 보크사이트 채굴량은 약 420만톤(2024년 추정·USGS)이다. 이 속도로 채굴한다면 이론상 1,380년치 매장량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실제 경제성 있는 채굴 가능 매장량은 이보다 적지만, 자원의 규모가 비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치 추산도 가능하다. 보크사이트 국제 거래가는 톤당 약 \$45~\$55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58억톤×\$50=약 \$2,900억(약 425조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료 가치에 불과하다. 알루미나로 정제하면 톤당 \$600~\$1,100, 알루미늄 금속으로 완성하면 톤당 \$2,200~\$2,800(국제 시장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 사슬 전체를 타면 원료 대비 50~60배의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능성은 베트남 보크사이트 매장량의 73%가 집중된 핵심 지역이다. 다능성 정부는 2030년까지 "알루미늄·탄소 이후 산업의 국가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람동성의 현 제련소 외에도 비나코민(Vinacomin) 등이 추가 알루미늄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호아팻(Hoa Phat) 그룹도 연 50만톤 보크사이트·알루미나 20만톤·알루미늄 전해 5만톤 규모의 대형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자원을 둘러싼 개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

▶ 세계 보크사이트 매장량 상위 5개국 비교 (USGS 2025 기준)

순위	국가	매장량 (억톤)	세계 비중	주요 특징
1위	기니 (Guinea)	74억톤	23.1%	서아프리카·고품질 삼수화알루미늄
2위	베트남 (Vietnam)	58억톤	18.1%	중부 고원 집중·다능성 73%
3위	호주 (Australia)	53억톤	16.6%	세계 최대 채굴국·성숙 산업
4위	브라질 (Brazil)	27억톤	8.4%	아마존 유역·대형 알루미늄 기업 보유
5위	자메이카 (Jamaica)	20억톤	6.3%	카리브 소국·전통 보크사이트 수출국
세계 합계	—	320억톤	100%	베트남이 세계 2위 보유국

③ 첫 잉곳이 갖는 의미 - 산업 사슬 완성과 수입 대체의 시작

7월 26일 공개된 잉곳 한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첫 생산이 아니다. 보크사이트 채굴→알루미나 정제→알루미늄 전해 제련으로 이어지는 산업 사슬의 마지막 고리가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보크사이트를 캐고 알루미나(1차 정제물)를 만들어 수출했다. 알루미나 수출 평균가는 2024년 기준 톤당 \$670이었다. 반면 완성 알루미늄 수입 평균가는 \$1,059 이상이었다. 싸게 파는 원료와 비싸게 사오는 제품 사이의 격차가 그동안의 구조적 손실이었다.

이번 제련소 가동으로 그 격차의 일부가 메워지기 시작한다. 1단계 연 15만톤 생산으로 시작해 완전 가동(45만톤) 시 연간 약 \$15억 규모의 알루미늄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이는 단순 무역수지 개선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국내에 남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알루미늄은 건설·자동차·전자·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베트남의 핵심 성장 산업 모두에 필수 원자재다. 수입 의존에서 국내 조달로의 전환은 이들 다운스트림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기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제련소에 적용된 500kA 전해조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최신 대용량 기술에 해당한다. 잉곳 순도 99.71%는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 베트남이 단순 채굴·정제 수준을 넘어 고도 야금 기술을 실제 생산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술 역량 축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다능 알루미늄 전해 제련소 단계별 생산 계획 (람동성 년고 산업단지)

단계	가동 시기	연간 생산능력	주요 내용
1단계 (완료)	2026년 7월 26 일공식출하	연 15만톤	총투자 28조동(\$10.7억)/ 면적 128헥타르 순도 99.71% / 500kA 전해조 기술
2단계	2026년 4분기 목표	연 30만톤	기존 전해 설비 증설 알루미나 국내 소비 본격화
3단계	2027년 1분기 목표	연 45만톤 (설계 용량 달성)	직간접 고용 약 3,500명 연 \$15억 수입 대체 달성 예상
2030년 이후 국가 계획	2030년 이후	연 45만~90만톤 (전국 합산)	다능 외 추가 사업 포함 보크사이트 채굴 4,730만톤/년

★ 편집부 평가 - 오랜 자원의 역설이 풀리기 시작했다 - 그러나 갈 길도 남아 있다

7월 26일 람동성 년고 산업단지에서 나온 알루미늄 잉곳 하나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겹이다. 세계 2위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11년간 제련소 없이 원료를 내다 팔고 완성 금속을 사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제야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성취는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알루미나를 \$670에 수출하고 알루미늄을 \$1,059에 수입해야 했던 구조적 손실의 순환이, 이번 제련소 가동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산업 사슬의 마지막 고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부가가치가 베트남 안에서 머물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한 가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규모와 속도다. 1단계 연 15만톤은 2024년 베트남 전체 알루미늄 소비량(약 193만톤)의 약 8%에 불과하다. 45만톤 완전 가동이 이루어져도 국내 수요의 약 23% 수준이다. 알루미늄 수입 의존 구조가 단기간에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아울러 전해 제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 안정성, 붉은 진흙(Red Mud) 처리 등 환경 과제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장기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의 보크사이트 자원은 여전히 미개발 잠재력이 크다. 58억톤 중 현재 개발 중인 것은 극히 일부다. 앞으로 어떤 기술·자본·환경 조건을 갖추어 이 자원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이번 첫 잉곳 출하가 개막한 새로운 챕터에서 천천히 확인될 것이다.

[출처(수치 확인):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보크사이트 매장량) · VietnamPlus·VNA·VietnamNews·DTiNews "베트남 첫 알루미늄 잉곳 공개" (2026.07.26) · AL Circle "The quiet rise of Vietnam in aluminium" (2025.10) · Vietnam Briefing "Vietnam Critical Minerals" (2026.06.03) · VietnamPlus "Vietnam taps into aluminium surge" (2025.10) · IndexBox "Vietnam Alumina Market" (2025) · Vietnam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국가광물계획 2021~2030
※ 매장량 주의: 일부 출처 세계 최대(11억톤) 표현은 2010년 총리 추정치 — USGS 공식 최신(2025) 수치 58억톤·세계 2위를 이 기사의 기준으로 채택함]

하이퐁(Hải Phòng)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베트남 북부를 먹여 살리는 항만 · 산업 메가허브

하이퐁(Hải Phòng)은 베트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빠르게 달려온 도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곳은 베트남 전국에서 하이퐁 하나뿐이다. 2025년 하이즈엉(Hải Dương)성과 통합하며 면적 3,194.72km², 인구 460만~470만명의 거대 직할시로 새로 태어났다. 북부 최대 항만인 락후옌(Lạch Huyện) 국제심해항, 전국 3위 경제 규모, 누적 FDI \$460억의 하이퐁은 지금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문턱에서 있다.



면적 · 인구 (2025년 7월 통합 후)	2025년 GRDP 성장률	누적 FDI (2026년 6월 말)	2026년 목표 GRDP 성장률
3,194.72km ² 460만~470만명 하이즈엉성 통합 결의 226/2025/ QH15	11.81% 전국 2위·직할시 1위 11년 연속 두 자릿수 베트남 유일	\$460억 이상 1,071개 프로젝트 2026년 상반기 \$29.3억 연간 목표 81.4% 달성	13% 수출 \$520억 FDI \$38억 ~\$43억

① 왜 하이즈엉과 합쳤나 - 2025년 행정통합의 의미

2025년 7월, 국회 결의 226/2025/QH15에 따라 하이퐁시와 하이즈엉(Hải Dương)성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다. 두 지역의 서로 다른 강점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함이다. 하이퐁은 베트남 최대 북부 항만, 물류, 첨단 제조업의 거점이다. 하이즈엉은 농업·경공업·섬유·식품 가공 분야에서 강점이 있었다. 합쳐지면서 경제 규모가 전국 3위(하노이·호찌민에 이어)로 올라섰다.

통합 후 산업단지 체계도 커졌다. 합산 산업단지 24개, 산업집적지 71개가 하나의 행정 체계 아래 묶였다. 총 면적은 약 3,194.72km²로 서울의 약 5.3배에 달한다. 인구는 460만~470만명이다. 여기에 국회는 결의 226호에서 하이퐁에 대규모 항만·인프라 사업 자체 승인권 등 특별 자치 권한을 부여했다. 행정 효율과 속도가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총서기 겸 국가주석 또 림(Tô Lâm)은 2026년 3월 하이퐁을 직접 방문해 "2045년까지 현대적인 아시아급 산업·서비스 항만 도시, 해양경제·물류·청정에너지·해양과 학기술의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이퐁이 단순 제조 도시가 아닌 국가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다.

② 락후옌(Lạch Huyện) - 베트남 북부를 아시아와 잇는 심해항

하이퐁의 경쟁력 핵심은 락후옌 국제심해항이다. 하이퐁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인공섬에 건설됐으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됐다. 2025년 현

재 6개 선석이 운영 중이다. 2025년 5월 베트남 정부는 락후옌에 최대 165,000DWT급 선박 입항을 허가했다.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이퐁항은 세계 상위 30대 컨테이너항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6년에는 7~12번 선석 건설이 본격 착공된다. 사이공뉴포트(Saigon Newport Corporation)가 약 5억4,500만달러(약 7,969억원)를 투자해 7·8번 선석을 건설한다. 각 선석 길이 450m, 12,000~18,000TEU급 선박 접안 설계다. 연간 처리 능력 190만TEU가 추가된다. 이 시설은 2027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빈그룹(Vingroup)이 남도선(Nam Đỗ Sơn) 항만에 4,300헥타르, 약 142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항만·물류센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 연결성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하이퐁-하노이-라오까이-원난(중국) 철도가 약 80억달러(약 11.7조원) 규모로 착공됐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중국 남부-하이퐁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물류 축이 생긴다. 라오스-중국 철도와 연결되면 동남아 대륙 물류의 핵심 중점이 하이퐁이 된다.





▶ 하이퐁 주요 항만 현황 및 개발 계획 (2026년 기준)

항만 · 구역	현황	투자자 · 규모	완공 시기
락후옌 1~6번 선석 (현재 운영 중)	6개 선석운영 최대 165,000DWT 허가 세계30대컨테이너항진입	하이퐁항· TIL국제터미널 (MSC 합작)	운영 중 (2025년 5월 165,000DWT 허가)
락후옌 7·8번 선석 (신규 착공)	450m 길이 × 2 12,000~18,000TEU 연간 190만TEU 추가	사이공뉴포트 \$5억4,500만(약 7,969억원)	2027년 4분기 완공 목표
락후옌 9~12번 선석 (계획 중)	추가 선석 4개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응	투자자 선정 중	2028년 이후
남도선 (Nam Đỗ Sơn) 국제환적항 (계획)	4,300헥타르 대규모 국제환적·물류 허브	빙그룹(Vingroup) \$142억(약 20.8 조원)	계획 단계 착공 시기 미정

③ 산업단지 48개 · FDI 누적 \$460억 - LG · 부산항만공사가 선택한 도시

2026년 6월 말 기준, 하이퐁에는 경제구역 3개(총 47,840헥타르), 자유무역지구 1개(5,300헥타르), 산업단지 48개(총 13,829.82헥타르)가 있다. 누적 FDI는 1,071개 프로젝트, 총 \$460억 이상이다. 2026년 상반기에만 \$29억3,000만을 유치해 연간 목표(\$38억~\$43억)의 81.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한국 기업이 하이퐁 최대 외국인 투자자 그룹이다. LG그룹이 핵심이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이 하이퐁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공장 증설과 생산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2023년 반도체 패키징 기판 공장 \$10억 투자를 승인받아 하이테크 분야로 확장했다. LG그룹 현지 법인들은 2026년 상반기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해 하이퐁시 FDI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DEEP-C 산업단지는 북베트남 최대 산업단지로 글로벌 기업 160개사, 한국 기업 26개사가 입주해 있다. 하이퐁항에서 약 15km, 하노이-중국 국경 고속도로에 인접해 물류 조건이 탁월하다. 7월 16일에는 부산항만공사(BPA)가 DEEP-C 내에 물류허브를 짓는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항이 하이퐁과 공식 물류 협력에 나선 것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항만 연결이 제도화되는 이정표다.

자유무역지구(FTZ)도 2026년 2월 정식 출범했다. 총리 결정 288/QĐ-TTg로 설립된 하이퐁 특별경제구역(5,300헥타르)은 세금·수수료 혜택, 고급 인력 지원 등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금융·역외무역·멀티모달 물류·공급망 관리 분야의 차세대 FDI를 겨냥한다.

④ 2026~2030 수퍼사이클 목표 — GRDP 연평균 13%, 1인당 소득 \$11,247

하이퐁시 제1기 당 대회(2025~2030)가 확정한 목표는 야심차다. 2026~2030년 GRDP 연평균 성장률 13% 이상, 2030년 1인당 GRDP \$11,247(현재 가격 기준), 디지털경제 GRDP 기여율 35% 이상, 산업생산지수(IIPI) 연평균 15.5~16.5% 성장, 총요소생산성(TFP) GRDP 기여율 60%를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2026년 단기 목표는 GRDP 성장률 13%, GRDP 총액 506조3,900억동, FDI \$38억~\$43억, 수출 \$520억, 관광객 1,608만명이다. 공공투자 집행도 목표액의 105.2%를 이미 달성한 전례가 있어 실행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2026년 상반기 GRDP 성장률은 11.33%로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2030년 이후 비전은 더 크다. 베트남 정부는 2045년까지 하이퐁을 "아시아급 현대 산업·서비스 항만 도시, 해양경제·물류·청정에너지·해양과학기술 국가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AI·자동화·R&D·고부가가치 지원산업에 집중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녹색 탄소중립 항만도시로의 전환도 명시됐다.

▶ 하이퐁 주요 한국 기업 · 기관 현황 (2026년 기준 확인)

기업 · 기관	업종 · 투자 내용	특이사항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LG Electronics Vietnam)	TV·가전·디스플레이 생산 하이퐁최대 단일 고용 기업	DEEP-C 산업단지 입주 2026년 생산 확대 지속
LG디스플레이 베트남 (LG Display Vietnam)	OLED·LCD 패널 생산 북부 핵심 첨단 공장	2026년 증설 투자 진행 중
LG이노텍 베트남 하이퐁 (LG Innotek Vietnam HP)	반도체 패키징 기판 공장 \$10억 투자 (2023년 승인)	첨단 소재·부품으로 영역 확장 최신 FDI 프로젝트
부산항만공사(BPA)	DEEP-C 내 물류허브 합작 글로벌 물류 공급망 5번 째 거점	2026년 7월 16일 JV 체결 한-베 항만 연결 제도화

★ 편집부 평가 - 하이퐁은 항만이 아니라 "북방 경제의 엔진"이다

하이퐁을 단순히 "항구 도시"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누적 FDI \$460억, LG그룹 전체가 집결한 도시. 이것은 항만이 아니라 베트남 북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중심이다.

2025년 하이즈엥과의 통합, 자유무역지구(FTZ) 출범, 락후옌 7~12번 선석 착공, 하이퐁-라오까이-윈난 철도 착공 —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이퐁을 "동남아시아 물류 · 첨단 제조의 북방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하이퐁은 이미 친숙한 도시다. LG 그룹이 먼저 들어갔고, 부산항만공사가 7월에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다음 차례는 LG 공급망 협력사, 물류 · 항만 장비 기업, 스마트항만 솔루션 기업들이다. 남도선 항만(\$142억), 락후옌 9~12번 선석, FTZ 첨단 제조업 단지가 새로운 진입 공간이다. 2026~2030 수퍼사이클이 시작된 지금이 타이밍이다.

[출처(공식 수치 확인): 국회 결의 226/2025/QH15 · VietnamPlus "Hai Phong maintains regional leadership" (2026.01.07) · VnEconomy "New development model" (2026.06.11) · Vietnam.vn "FDI 2.931 billion USD" (2026.07) · Archyde 통합 분석 (2026.02) · InCorp Vietnam 메가시티 분석 (2026.08) · The Investor 자유무역지구 (2025.12) · 서울경제 부산항만공사 (2026.07.16) · 베트남 총리 결정 288/QĐ-TTg (2026.02.12)]

VN-Index 4거래일 연속 상승 • 주간 +4.4% / SJC 금 소폭 하락 / FTSE D-52일



① VN-Index 주간 동향 - 4거래일 연속 상승, 1,754p 회복

이번 주 베트남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 월요일(7.27) 소폭 하락(-1.01%)으로 출발했지만 화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간 기준 약 +4.4%(+73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7월 30일(목)에는 하루 만에 +2.35%(+39.98p)를 기록하며 4월 8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을 달성했다. 거래대금도 7월 30일 VND 20.3조원으로 전일 대비 41% 급증하며 시장 에너지가 살아났다.

반등의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 7월 29일 미 연준(Fed)의 5회 연속 금리 동결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둘째, 베트남 2026년 상반기 GDP 8.18%·FDI \$346억 역대급 성적이 재확인됐다. 셋째, FTSE 신흥시장 편입(9월 21일·D-52일)을 앞두고 외국인 매수가 살아났다. 7월 30일 외국인은 VND 6,838억 순매수를 기록했다.

날짜	종가	등락	거래대금	특이사항
7.27(월)	1,680.62	-1.01%	VND 14.6조	이전 주 하락 연장
7.28(화)	1,680.62	+0.70%	VND 14.4조	11포인트 이상 상승·SSI +4.55%
7.29(수)	1,704.68	+1.43%	VND 16.1조	연준 동결 확인·안도 랠리
7.30(목)	1,744.66	+2.35%	VND 20.3조	4.8 이후 최대 일일 상승 외국인 VND 6,838억 순매수
7.31(금)	1,754p 내외	+0.52%	VND 19.2조	주간 마감·FTSE D-52일
주간 합계	1,680 → 1,754	+약 73p (+4.4%)	—	4거래일 연속 상승

▶ 주간 주도 종목 및 섹터

MWG(모바일월드) +4.96% - 2Q 순이익 YoY 2배(VND 3.3조)·매출 +30% 역대급 실적 발표

HPG(호아팻그룹) +3.19% - 철강·에너지 강세 수혜

SSI(증권사) +4.55% - 거래대금 급증 수혜·증권업 동반 강세

주도 섹터 금융·IT·에너지·부동산·증권·은행·소매 전 업종 동반 상승 (7.30 기준)

② SJC 금 가격 동향 -국제 \$4,000선 지지, 국내 소폭 하락 후 반등

이번 주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26~\$4,036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시장 반영 81%)이 금의 기회비용을 높이면서 하방 압력을 주었지만, \$4,000선 매수 심리가 받쳐주며 하락을 제한했다. 금 가격은 2월말 무력 충돌 시작 시점 대비 여전히 약 20% 낮은 수준이다.

국내 SJC 금값은 7월 27일 1억3,900만동(매수)/1억4,300만동(매도)에서 7월 29일 1억3,710만동/1억4,110만동으로 소폭 하락했다. 7월 30일에는 1억3,850만동/1억4,250만동으로 반등하며 주를 마감했다. 매수-매도 가격 차이는 400만동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날짜	SJC 매수가	SJC 매도가	국제금값	주간변동
7.27(월)	1억3,900만동	1억4,300만동	\$4,036/oz	+150만동
7.28(화)	1억3,750만동	1억4,150만동	\$4,026/oz	-150만동
7.29(수)	1억3,710만동	1억4,110만동	\$4,030/oz	-40만동
7.30(목)	1억3,850만동	1억4,250만동	\$4,038/oz	+140만동

③ FTSE 신흥시장 편입 D-52일 - 외국인 매수 본격화 신호

2026년 9월 21일 FTSE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편입까지 오늘 기준 52일이 남았다. 이번 주 증시 반등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FTSE 편입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매수다. 7월 30일 외국인 순매수 VND 6,838억은 최근 수개월 중 가장 큰 규모다. 주도 종목은 VIC(빈그룹)·VNM(비나밀크)·MSN(마산) 등 대형 우량주다.

FTSE Russell에 따르면 베트남 편입 이후 예상 자금 유입은 \$55억~\$80억이다. 이 자금이 9월 21일 이후 단계적으로 들어오면 VN-Index의 추가 상승 동력이 생긴다. VN-Index는 연초 대비 +17.3%를 기록 중이며 52주 최고(1,937p) 대비 현재 9.4%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베트남 금융시장 파트너십(7월 26일)과 2045 자본 시장 개혁안(7월 27일) 등 제도적 뒷받침도 이번 주 나란히 발표됐다.

◆ 편집부 평가 이번 주 VN-Index의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이다. 연준 동결 확인 + 상반기 GDP 호실적 + FTSE D-52일 선매수가 맞물리며 상승 동력이 중첩됐다. 다만 9월 인상 가능성(81%)이 살아있고, 무역적자 \$166억이라는 구조적 변수도 여전히 있다. FTSE 편입 전까지 변동성이 크게 남아있을 수 있어 단기 추격 매수보다는 편입 후 안정 확인 후 진입이 유리할 수 있다.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눈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모나리자
에서
르누아르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시를 엿니다



베트남 국제병원 - 진입은 쉬웠고 신뢰는 천천히 쌓였다

FV · 빈멕 · 하노이프렌치 - 경쟁력 · 평가 · 취약점 · 미래

제1편에서 다뤘듯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형 국립병원을 찾는다.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 이 패턴에 균열이 생겼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중상위층은 국립병원 대기 대신 국제병원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FV병원(프랑스계) · 빈멕(베트남계 국제) · 하노이프렌치(프랑스계)가 그 중심이다. 이들이 베트남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한계인지를 이번 편에서 들여다본다.



베트남 의료 시장 (2025년 기준)	연간 의료관광객	의료기기 수입 의존	민간 병원 비중
\$174.8억 약 25.5조원 연평균 성장 5.28% 2034년 \$277.7억 전망	약 30만명 수입 약 \$20억 주요 출처: 캄보디아·라오스 미얀마·재외 교포	90% 이상 국내 생산 능력 극히 부족 의약품 수입도 \$44 억(2024)	14% (전체 병원 수 기준) 공립 86% 지배 환자의 60%는 대 형 공립

① 베트남에서 국제병원이 성장한 이유 - 국립병원의 한계가 만든 시장

베트남 국제병원 시장이 생겨난 배경은 간단하다. 공립병원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베트남 공립병원은 전체 병원의 86%를 차지하지만 하노이·호찌민시의 대형 공립병원들이 전국 환자의 60%를 처리하며 정원의 200%로 운영된다.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을 보는 구조다. 돈이 있는 환자들이 대기 없이 영어로 소통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2015년 주택법 개정 이후 외국인 거주자가 급격히 늘면서 수요 풀이 더 넓어졌다.

▶ 베트남 주요 국제병원 비교 (2026년 기준)

병원명	설립 · 소유	규모	인증 · 특징	인증 · 특징 주요 강점
FV병원 (Franco-Vietnamese Hospital)	2003년 프랑스 의사 집단 설립 →2024년 톰슨메디컬(싱가포르) 인수	병상 220개 직원 1,500명 의사 200명+	JCI 4회 연속 (남부 유일) HAS(프랑스 인증) News- week 아태 2026	암 · 심장 · 응급 · 정형외과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 외국인 · 교민 신뢰도 1위
빈멕 인터내셔널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2012년 빈그룹(Vingroup) 산하 베트남계 최대 국제병원망	전국 10개 병원 6개 클리닉 전문의 580명+	JCI 2개 병원 Cleveland Clin- ic 연계 ACC 심장 인증 외국 인 환자 국내 1위	CAR-T세포 치료(국내 유일) 줄기세포 치료 의료관광 허브 목표 200개국 50만명+ 치료
하노이프렌치병원 (Hanoi French Hospital)	1997년 (베트남 최초 외국인 병원) 현재 빈멕 그룹 산하	병상 120개 전문의 약 100명	JCI 인증 프랑스식 의료 체계 유지 외국인 대사관 의료 파 트너	소아과 · 내과 · 산부인과 하노이 외국인 커뮤니티 신뢰 대사관 · 국제기구 의료 파트너
안빈병원 (An Binh Hospital)	1975년 설립 2000년대 국제화 호찌민시 외국인환자 특화	병상 300개 외래 특화형	BCBS · AXA 보험 협약 24시간 통역 서비스	중산층 외국인 · 교민 대상 FV보다 저렴한 가격대 7군 · 1군 이동 거리 유리
라파스병원 (Raffles Medical Saigon Clinic 등)	2005년~ 싱가포르 라파스 그룹	클리닉 형태 외래 전문	JCI 클리닉 기준 싱가포르식 운영	기업 건강검진 싱가포르 파트너십 의뢰 입원 제한적

하노이·호찌민시 거주 외국인 수는 2020년대 들어 각각 15만~20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로벌 의료 기준을 갖춘 병원은 생활의 기본 인프라다. 동시에 베트남 중상위층이 성장하면서 "비싸더라도 제대로"를 원하는 내국인 수요도 가파르게 늘었다.

정부도 이 흐름을 허용했다. 2018년 외국인 투자 의료 기관 설립 규정을 완화하고, 국제 인증(JCI 등)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조금씩 넓혔다. 2024년 FV병원의 호찌민시 사회보험공단과 고액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협약이 그 예다. 정부가 국제병원을 국립병원 과밀의 압력 밸브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② 베트남 사회에서의 평가 - "비싸지만 믿는다"와 "비싸서 못 간다"의 공존

베트남 사람들이 국제병원에 대해 갖는 감정은 복잡적이다. "가고 싶다"와 "가기 어렵다"가 동시에 존재한다. 온라인 포럼(Tinhte, Webtretho, Facebook 육아 그룹)에서 FV병원이나 빈멕을 검색하면 긍정 후기가 압도적이다. "의사가 충분히 설명해준다", "깨끗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외래 진료가 빠르다"가 공통적이다. 특히 소아과·산부인과에서 FV병원과 빈멕 센트럴파크에 대한 내국인 신뢰가 높다.



그런데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FV병원 외래 진료비는 약 80만~120만동(약 4만~7만원)으로, 같은 증상에 공립병원에서 5만동(약 2,800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16~24배 차이가 난다. 입원 1인실은 하루 350만동(약 19만원) 이상이다. 빈멕도 일반 진료 50만~150만동(약 3만~8만원)이다. "일반 국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재가 된 것이다.

외국인 거주자와 한국 교민에게 국제병원의 의미는 다르다.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의료 기록 관리·보험 청구 처리까지 통합으로 해결해주는 FV와 빈멕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FV, 건강검진은 빈멕"이라는 비공식 공식이 통용된다. 2024년 FV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내국인 중상위층으로 수요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다.

③ 취약점과 한계 — 이름은 국제, 현실은 여전히 간극이 있다

첫 번째 취약점은 중증·복합 수술의 한계다. 빈멕이 CAR-T세포 치료와 Cleveland Clinic 연계를 자랑하지만, 현실에서 복잡한 신경외과·심장수술·희귀 암 등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태국 범룽랏·싱가포르 마운트엘리자베스로 이송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FiinGroup 리서치에 따르면 베트남인이 해외에서 쓰는 의료비는 연간 약 8억~10억달러(약 1조2,000억~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태국·싱가포르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병원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의약품 수입 의존이다. 베트남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90% 이상이 수입품이다. 의약품도 2024년 \$44억여치를 수입했다. FV·빈멕이 최신 장비를 들여왔지만 유지보수·부품·소모품이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환율 변동과 수입 규제가 서비스 비용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의료 인력 부족이다. 빈멕의 580명 전문의는 10개 병원에 분산된다. 각 병원 평균 58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분야 초전문(subspecialist)은 병원 한 곳에 한두 명뿐일 수 있다는 것이다. FV는 프랑스·독일 등 외국인 의사를 영입하지만 비자·면허 규정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외국 의사의 베트남 면허 취득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연동의 한계다. 베트남 국민건강보험(BHYT)은 2024년 인구 94.2%를 커버하지만, 국제병원에서 보험 적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FV병원이 2024년 공단과 협약을 맺었지만 대상은 일부 고가 치료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전액 자부담이다. 국제 민간보험(AXA·BUPA·AIA 등) 가입자가 아니면 국제병원은 여전히 "현금이 있어야 가는 곳"이다.

④ 경쟁성과 미래 비전 - 태국·싱가포르와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동남아 의료관광 시장에서 베트남의 현재 위치는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멀었다"에 가깝다. 태국은 2024년 약 30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며 세계 3대 의료관광 허브를 자처한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고소득층의 아시아 최고급 의료 목적지로 자리를 굳혔다. 베트남의 연간 의료관광객 30만명은 태국의 10% 수준이다. 그런데 시장 포지셔닝이 다르다. 베트남은 태국·싱가포르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점점 품질이 올라오는 "가성비 의료관광"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

빈멕의 미래 비전은 가장 명확하다. "동남아 의료관광 넘버원"이다. Cleveland Clinic 연계·CAR-T세포 치료·줄기세포 치료·JCI 2개 병원 인증이 이 목표의 토대다. 전국 10개 병원 네트워크는 호찌민시·하노이 외에 칸토·다낭·나짱·하롱까지 커버한다. 2025~2026년 헬스케어 아시아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올해 병원 그룹"을 수상한 것이 현재 위상을 보여준다.

FV병원은 2024년 싱가포르 톰슨메디컬 그룹에 편입되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었다. 싱가포르 모그룹의 네트워크와 자본이 뒤를 받쳐준다. 다낭 진출 계획(투자 \$500만)도 있다. 암 치료에서 사이버나이프 S7 방사선 치료 시스템(200억동·약 \$800만 투자)을 도입해 고난도 비수술 치료의 선도 병원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 그리고 Newsweek 아시아태평양 2026 전문병원 최고 등재는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국 의료와의 비교도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빈멕·FV는 아직 이름이 낯설다. 그러나 비용 구조를 보면 같은 JCI 인증 기준에서 베트남 국제병원이 한국 대비 30~50% 저렴하다. 빈멕은 "미국에서 무릎 수술이 \$30,000인데 빈멕에서는 그 일부"라고 직접 비교한다. 의료관광에서 베트남이 한국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가 될 여지도 있다.

★ 편집부 평가 - 국제병원은 베트남 의료의 천장을 높이고 있다 - 그러나 아직 모두의 병원은 아니다

FV·빈멕·하노이프렌치가 베트남 의료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에서도 이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JCI 인증, Cleveland Clinic 연계, CAR-T 세포 치료 — 이것들은 10년 전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베트남 중상위층이 태국·싱가포르로 날아가던 돈 일부가 이제 국내 국제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의료기기 90% 수입 의존, 전문 인력 부족, 건강보험 연동의 한계, 복합 수술에서의 해외 이송.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연간 8억~10억달러가 해외 의료비로 빠져나가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국제병원의 성공은 아직 절반짜리다.

한국 기업·교민에게 가장 실용적인 시각은 이렇다. 외래·건강검진·출산·소아과·일반 수술 — 이 범위에서는 빈멕·FV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복잡한 암·신경외과·고난도 심장수술 — 여기서는 여전히 한국·태국·싱가포르가 현실적 선택지다. 그 경계선을 파악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의료 판단을 내리는 출발점이다.

[출처(수치 확인): IMARC Group Vietnam Hospital Market (2025) · FiinGroup Vietnam Private Healthcare Sector Preview (2025.05) · FV Hospital 공식 (fvhospital.com) 2025 JCI 재인증 98% 준수 · Vinmec Healthcare System 공식 (vinmec.com) · My1Health.com Vinmec Profile · AMCham Vietnam FV Hospital Profile · Vietnam.vn FV 국민보험 협약 · VietnamNet Medical Tourism (2026.04) · Nexdigm Vietnam Healthcare Market Report (2025) · U.S. ITA Vietnam Healthcare Guide (2026.03) · Newsweek Asia Pacific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6]

오피스텔(Officetel) -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회색지대

2015년 빈훅즈에서 시작된 개념, 10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불완전한 이유

2015년경 호찌민시에서 빈훅즈(Vinhomes)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내놓았다. 이름하여 오피스텔(Officetel). 주거와 사무소 기능을 함께 쓸 수 있다는 콘셉트였다. 한국에서 먼저 정착한 개념을 베트남 시장에 이식한 것으로, 당시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했고 "투자용으로 좋다"는 마케팅이 효과를 냈다. 문제는 이 상품이 베트남 법 어디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팔렸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호찌민시에만 8,918가구가 29개 프로젝트에서 아직도 소유권 증서(핑크북·Sổ Hồng) 발급을 받지 못한 채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① 오피스텔이란 무엇인가 - 한국 개념의 베트남 이식

오피스텔(Officetel)은 원래 한국 고유의 부동산 개념이다.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을 합친 조어로,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하나의 유닛에 통합한 다목적 건물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등장해 1990년대 이후 도심 소형 사무실과 원룸 주거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며 정착했다.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돼 공동주택(아파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복잡한 위치에 있다.

베트남에 이 개념이 들어온 것은 2010년대 초반이다. 한국식 용어 그대로 오피스텔(Officetel)이라 불리며 주로 호찌민시·하노이 대형 복합단지에 도입됐다. 빈훅즈 센트럴 파크(2015년)를 비롯해 여러 대형 개발사들이 일반 주거 아파트와 같은 건물 또는 별개 동(棟)으로 오피스텔을 구성해 분양했다. 마케팅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첫째,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 저렴(같은 위치 아파트 대비 20~30%). 둘째, 거주와 사무 등록 동시 가능. 셋째, 단기 임대 수익 기대.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내재돼 있었다. 베트남에는 한국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부동산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발사들이 임의로 붙인 마케팅 명칭이 먼저 시장에 퍼졌고, 법은 한참 뒤에야 따라오려 했다. 사겠다는 수요가 있으니 팔고, 규제는 나중에 정비되겠지 하는 방식이었다.

② 베트남 법에 오피스텔이 있는가 - 법적 정의의 부재와 사후 입법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베트남 법령에는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이 공식 부동산 유형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15~2020년 오피스텔 분양이 활발히 이뤄지던 당시에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건설부·국토자환경부 어디에도 오피스텔을 별도 카테고리 규정 조항이 없었다.

사후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2021년 건설부가 "복합기능 건물 내 아파트(Căn hộ chung cư trong tòa nhà hỗn hợp)" 개념을 도입하려 했고, 2023년 시행령 10/2023/ND-CP(토지사용권 증서 발급 관련)에서 상업용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서 발급 조건을 규정했다. 2024년 10/2024/TT-BTNMT가 이를 보완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오피스텔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토지(Commercial Land·Đất Thương Mại Dịch Vụ) 위에 건설된 다기능 건물"의 소유권 증서 발급 조건을 우회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2023년 주택법(Housing Law 2023·2025년 1월 1일 발효)과 2024년 토지법(Land Law 2024·2024년 8월 1일 발효)은 혼합용도 건물(Mixed-Use Building·Tòa Nhà Hỗn Hợp)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각 오피스텔 프로젝트의 토지 용도, 건축 허가, 완공 검사 통과 여부, 개발사의 재정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소유권 증서 발급 가능 여부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③ 왜 2015년경에 등장했나 —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이해관계

개발사 입장에서 오피스텔은 매력적인 상품이였다. 도심 상업용 토지(Đất Thương

Mại Dịch Vụ)는 일반 주거용 토지보다 개발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주거 아파트를 짓기 위한 복잡한 주거용 토지 전환 절차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도 느슨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미 상업용으로 허가받은 도심 복합단지에 주거 기능을 일부 넣는 방식으로 분양 가능 면적을 늘리는 수단이 됐다.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업용 건물 분양이 주거 건물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었다.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소유가 처음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외국인은 일반 주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각 건물 전체의 30%라는 외국인 보유 한도를 적용받는다. 반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이 한도 적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실상의 우회 경로로 작동했다. 여기에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단기 임대 수익 기대, "도심 소형 사무실+주거 통합"이라는 콘셉트가 맞물려 2015~2019년 사이 호찌민시·하노이·다낭에서 급속히 퍼졌다.

콘도텔(Condotel·휴양지 콘도미니엄)과 함께 신형 부동산(Bất Động Sản Mới)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달구었다. 당시 마케팅에서는 연 8~12% 임대 수익 보장이라는 약속이 단골 문구였다. 그리고 이 약속이 깨지면서 이후 법적 분쟁이 줄줄이 이어졌다.

▶ 오피스텔 분양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 (법적·실무 관점)

리스크 유형	구체적 내용	현황 (2026년 기준)
소유권 증서 (핑크북) 발급 불가	상업용 토지 위 건물로 분류시 50년 기한 증서만 발급 가능 (일반 아파트는 영구 소유권)	호찌민시 8,918가구·29개 프로젝트 2026년 현재도 핑크북 미발급 상태
주민등록(호카우) 불가	일반 주거 아파트의 영구 주민등록 (호카우 투웅 쭈)이 불가 임시거주(땀쭈)만 허용	자녀 학교 배정·의료보험·각종 행정 서비스 불이익 발생
소유권 기간 제한	토지 용도에 따라 50년 한정 (갱신 가능하나 보장 없음) 영구 소유권 아님	2023 주택법·2024 토지법 후 일부 갱신 조항 정비됐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임대 수익 보장 약속 불이행	개발사가 연 8~12% 보장 약속 후 이행불가 사례 다수 법적 강제력 없는 구두 약속	기존 오피스텔 투자자들의 수익 모델에 직접 타격
외국인 거래 제한	외국인 소유 가능 여부 프로젝트별로 다름 일부 상업용 오피스텔은 외국인 30% 한도 적용 여부 불분명	프로젝트별 개별 확인 필수 법률 전문가 검토 없이 거래 위험
사업자등록 허용 여부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혼재	프로젝트 용도 지정에 따라 개별 판단·무조건 허용 아님



④ 현재도 오피스텔 개념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2026년 현재에도 오피스텔 명칭은 시장에서 사용된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9~2021년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피스텔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이후 개발사들은 명칭을 "비즈니스 레지던스(Business Residence)",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 등으로 바꾸어 비슷한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본질은 같으나 이름을 바꾼 경우다.

핵심 변화는 법적 토대 구비 여부다. 2024년 이후 분양하는 오피스텔 유사 상품들은 시행령 10/2023/ND-CP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늘었다. 즉 토지 용도 허가·건축 허가·소방 안전·환경 기준을 사전에 갖추고, 핑크북 발급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복합용도 건물들이 이 구조를 채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호찌민시에서는 과거 법적 문제가 있는 오피스텔들의 소유권 증서 발급이 2025~2026년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중이다. 호찌민시 "1645 전담반(Task Force)"이 미발급 프로젝트를 하나씩 처리하고 있으나 속도가 빠르지 않다. 2026년 5월 기준 노바랜드의 골든맨션(2018년 입주 시작)이 8년 만에 핑크북 발급 절차가 재개되는 등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⑤ 베트남 정부의 대응 - 사후 정비 시도와 남은 과제

베트남 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신형 부동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이후다. 2020년 건설부가 콘도텔·오피스텔 등 신형 부동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했으나 법령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2021~2022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오피스텔을 독립 유형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최종 법령에 반영되지 못했다.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2023~2024년이다. 시행령 10/2023/ND-CP는 "상업·서비스용 토지 위에 건설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 증서 발급 조건을 명시했다. 2024년 주택법(2025년 1월 발효)은 혼합용도 건물 개념을 포괄하고, 상업용·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2024년 토지법(2024년 8월 발효)은 상업용 토지의 소유권 기간(50년·갱신 가능)을 명확히 했다.

호찌민시 차원에서는 2025년 2월 단기 임대(에어비앤비·단기 숙박) 운영 규제를 강화했다. 소방 안전 검사 통과·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달았다. 미신고 단기 임대 오피스텔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됐다. 현재 정부 방향은 "소급 정비"다.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 증서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핑크북을 주되, 소유 기간은 50년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남은 과제도 명확하다. 베트남에는 아직 오피스텔을 독립된 법적 부동산 유형으로 정의하는 단일 법령이 없다. 주택법·토지법·건설법·부동산사업법에 각각 흩어진 규정을 유권해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오피스텔 전용 법령"은 현재로서는 없다.

▶ 일반 아파트 vs 오피스텔 - 핵심 차이 비교 (2026년 현행 규정 기준)

구분	일반 아파트 (Căn Hộ Chung Cư)	오피스텔 (Officetel)
토지 용도	주거용 토지 (Đất Ở)	상업·서비스용 토지 (Đất Thương Mại Dịch Vụ)
소유권 기간	영구 소유권(지속 갱신 가능)	50년 + 갱신(보장 불확실)
소유권 증서(핑크북)	발급 (영구 소유권 기재)	조건부 발급 (50년 기한 기재)
영구 주민등록 (호카우)	가능	불가(임시거주만 허용)
외국인 소유	30% 한도 적용	프로젝트별 개별 판단
사업자 주소 등록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일부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단기 임대	원칙적 별도 허가 필요	별도 허가·소방검사 필요 (2025.2 규제 강화)
분양가	상대적 높음	같은 위치 대비 20~30% 낮은 경향
법적 정의	주택법에 명확히 정의	법적 정의 없음(마케팅 명칭)

★ 편집부 평가-오피스텔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법과 시장의 격차"가 낳은 산물이다

2015년 빈홍즈에서 처음 등장한 오피스텔 개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으로 불완전한 이유는 단순하다. 법이 준비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개발사들은 상업용 토지에서 주거·사무 복합 기능을 묶어 판매하면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았다. 법에 오피스텔 정의가 없었으므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그 틈에서 수만 가구가 분양됐다.

지금 호찌민시에만 8,918가구가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영구 주민등록이 안 되고, 소유권 기간이 50년으로 제한되고, 단기 임대 규제까지 강화된 지금, 과거에 "투자용으로 좋다"는 말만 믿고 분양 받은 구매자들은 다양한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대응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팔린 수만 가구를 불법으로 규정해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급 정비(조건 충족 시 50년 핑크북 발급)가 현실적 해법이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용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각 프로젝트마다 개별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새로 분양되는 비슷한 상품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에서 오피스텔이나 그 변형 상품(비즈니스 레지던스·스마트 오피스)을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해당 토지의 용도 지정이 무엇인가. 둘째, 소유권 증서 발급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인가. 셋째, 영구 주민등록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출처: InspireHub "What is an officetel? Pros, cons, and legal status in Vietnam" (2026.06.05) • 시행령 10/2023/ND-CP • 통달 10/2024/TT-BTNMT • 주택법 2023(2025.01.01 발효) • 토지법 2024(2024.08.01 발효) • KPMG Vietnam Housing Law Update (2024.02) • Nishimura & Asahi "Legal picture of condotel/officetel in Vietnam" (2024.02) • Xin Chao Vietnam 핑크북 발급 기사 (2026.05.29) • Rumavi "Foreign property ownership in Vietnam 2026" (2026.07) • VIR 부동산 시장 보도 (2025~2026)

※ 이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법적 지위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UV(British University Vietnam)

하노이에서 영국 학위 취득-아세안 최초 QAA, 베트남 최초 QS 5성

하노이 시내에서 차로 30분, 에코파크(Ecopark) 친환경 도시 안에 붉은 사자 마크가 그려진 캠퍼스가 있다. 영국대학교 베트남(British University Vietnam • BUV)이다. 2009년 설립 이래 베트남-영국 정부 협력의 산물로 출발해, 지금은 "베트남에서 런던대학교 • 스텔퍼드셔 • 본머스 학위를 그대로 받는 유일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QS 5성(베트남 최초)과 QAA 국제품질인증(아세안 최초)을 동시에 보유한, 숫자로 말하는 국제대학이다.

설립/캠퍼스	교육 품질	참여 대학	취업 평가
2009년 설립 에코파크•흥옌성 하노이 시내에서 30분 총 투자 \$1억 6,500만	QS 5성 베트남 최초 아세안 최초 QAA 인증 (영국 고등교육 품질보증청	6개 영국 명문대 직접 학위 수여 런던대•스태퍼드 셔•스털링 본머스•AUB•MMU	졸업 3개월 내 100% 산업 파트너 400개사+ 국내외 인턴십 1학년 부터

① BUV는 어떤 대학인가-베트남-영국 협력의 산물

2009년,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영국 측의 공식 협력으로 문을 연 BUV는 베트남 최초의 순수 영국식 학위 수여 대학이다. 설립자는 칼리드 무흐무드(Khalid Muhmood MBE)와 아라벨라 피터스(Arabella Peters)다. 초기에는 하노이 시내 임시 캠퍼스에서 시작했으나 2018년 에코파크 전용 캠퍼스 1단계를 완공하면서 본격 성장했다.

지금 BUV의 모그룹은 말레이시아 테일러 교육 그룹(Taylor's Education Group)이다. 테일러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에 7개 국제학교•2개 칼리지•2개 대학을 운영하며 약 2만3,000명의 학생을 보유한 아시아 대형 교육 그룹이다. BUV는 이 그룹의 베트남 고등교육 거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학위의 동등성이다. BUV에서 런던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런던에서 공부한 학생과 동일한 커리큘럼•시험•학업 기준으로 평가받고 런던대 학위증을 받는다. 런던대 측이 직접 학문지도(Academic Direction)를 맡는다. 이것이 글로벌 분교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학위 수여(Direct Degree)라는 차별점이다. 학위에 "베트남"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 BUV 파트너 대학 및 제공 프로그램 (2026년 기준)

영국 대학교	특징	전공	학비
런던대학교 (University of London)	LSE 학문지도 세계 8위권 연구 대학	금융경제•경영•법학 심리학•수학	약 9억6,000만동 (약 5,300만원•3 년간)
스태퍼드셔대학교 (Staffordshire Univ.)	영국 중부 실용 특화 IT•의료•게임 강점	MBA•게임아트•IT 간호학•데이터AI	약 8억2,200만동 (약 4,500만원•3 년간)
스털링대학교 (University of Stirling)	스코틀랜드 명문 스포츠•경영 우수	스포츠학•경영 국제비즈니스	별도 문의
아츠유니버시티본머스 (Arts University Bournemouth•AUB)	영국 예술대 TOP5 창의 산업 특화	그래픽디자인•사진 일러스트•애니메 이션	약 8억~9억동 (약 4,400~5,000 만원)
본머스대학교 (Bournemouth Univ.)	미디어•관광 세계 TOP REF 연구 우수	관광경영•마케팅 전문커뮤니케이션	별도 문의
맨체스터메트로폴리탄 (MMU)	영국 최대 규모 대 학 중 패션•디자인 명성	패션디자인 비즈니스전략	별도 문의

② 캠퍼스와 생활 - 하노이 인근 자급자족 교육 도시

에코파크 캠퍼스는 BUV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다. 6.5헥타르 부지에 \$1억6,500만이 투자된 3단계 프로젝트다. 현재 1단계와 2단계 일부가 완공돼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전 단계 완공 시 7,000~10,000명 규모로 확장된다. 영국식 스마트 강의실, 최신 장비 실험실, 스포츠 시설, 기숙사, 카페•도서관이 모두 캠퍼스 안에 있다. QS는 이 캠퍼스에 시설 부문 5성을 부여했다.

에코파크 자체가 계획 친환경 도시라는 점도 특징이다. 하노이 외곽의 논밭 지대를 개발한 고급 주거 단지로 분위기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반면 하노이 시내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멀다는 단점도 있다. 셔틀버스가 하노이 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지만 도심 캠퍼스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응이 필요하다.

재학생 구성은 베트남인이 주를 이루지만 국제 학생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2025년 중국 교육부 산하 CSCSE와 MoU를 체결해 중국 학생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400개 이상의 국내외 산업 파트너를 통해 1학년부터 인턴십이 연결된다. PSG(개인•사회 성장 프로그램)가 학업 외에 리더십•봉사•스포츠 활동을 필수로 운영한다.

재학생 수는 BUV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현재 시설 수용 인원이 최대 2,000명이며, 학교 측은 "현재 재학생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 완공 후 7,000~10,000명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현재 재학생이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③ 베트남 사회에서의 평가 - "영국 학위 vs 비용 • 접근성"

베트남 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BUV에 대한 평가는 뚜렷하게 갈린다. 긍정 평가는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학위의 진정성이다. 런던대•스태퍼드셔 학위를 베트남에서 받는다는 것, 그리고 졸업 후 영국 유학•취업 비자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둘째 취업 연계다. 400개 이상 파트너사 인턴십 + 졸업 3개월 내 취업•진학률 100%라는 수치가 베트남 부모에게 설득력이 있다. 셋째 환경이다. 에코파크 캠퍼스의 시설 수준은 하노이 내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비판과 우려는 비용에서 시작된다. 런던대 프로그램 3년 전체 학비 약 9억6,000만동(약 5,300만원)은 베트남 평균 가구 소득의 10배 이상이다.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만 접근 가능한 교육이라는 비판이다. 일부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립대 장학금 받고 유학 가는 것과 BUV 학비가 비슷하다는 비교도 나온다.

접근성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하노이 시내에서 30분이지만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하고, 캠퍼스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RMIT 베트남이 호찌민 도심(7군 푸미홍)과 하노이 도심 캠퍼스를 모두 가진 것과 비교된다. 반면 BUV 재학생들의 리뷰(구글•페이스북)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교수들이 충분히 설명해준다", "시설이 정말 좋다", "커리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가 공통 호평이다.

▶ 베트남 주요 국제대학 학비 비교 (2026년 • 3~4년 전체 과정 기준)

대학교	위치	학비(3년 또는 4년간)	특징
BUV (런던대 프로그램)	하노이 에코파크	약 9억6,000만동 (약 5,300만원•3년)	직접 영국 학위 QS 5성•QAA 인증
BUV (스태퍼드셔 프로그램)	하노이 에코파크	약 8억2,200만동 (약 4,500만원•3년)	MBA•IT•게임•간호
RMIT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약 10억~13억동 (약 5,500~7,200만원•3년)	호주 RMIT 직접 학위 호찌민 도심 캠퍼스
BUV (자체 학위)	하노이 에코파크	약 6억1,400만동 (약 3,400만원 • 4년)	가장 저렴한 옵션 BUV+스태퍼드셔 이중학위
베트남 국립대 (VNU-HCM)	호찌민	약 2,000만~5,000만동 (약 110만~280만원•4년)	베트남어 수업 공립 최상위

④ BUV의 미래 비전 - "영국 교육의 베트남 허브"

BUV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비전은 베트남에서 영국 고등교육의 허브(UK Hub for Higher Education in Vietnam)다. 이를 실현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캠퍼스 확장이다. 3단계 완공으로 7,000~10,000명 규모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둘째, 프로그램 다양화다. 2024~2025학년도에만 14개 이상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데이터AI•게임아트•전문커뮤니케이션 등 4차산업 수요 분야가 집중 투자됐다. 셋째, 지역화다. CSCSE(중국)와 MoU를 체결하는 등 베트남 학생 외에 아시아 학생들을 끌어오는 허브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베트남 교육부가 국제대학에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순풍이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학 진학률을 4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대학은 국립대 과밀을 해소하는 보완재다. BUV처럼 해외 학위를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베트남 학생들이 해외에 쓰는 학비를 국내에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 선호된다. 2025년 베트남 학생들의 해외 유학비는 연간 약 \$40억으로 추산된다.

[출처(수치 확인): BUV 공식 웹사이트 (buv.edu.vn) • University of London BUV 소개 (london.ac.uk) • QS Stars Rating BUV • Branch Campus Finder BUV Profile • QAA International Quality Review Press Release (2023.02) • PRNewswire "BUV announces new programmes" (2024.01.31) • BritCham Vietnam BUV 7 new programmes (2024.10) • UniPage BUV Expenses • TopUniversities BUV Profile • CBInsights BUV Company Info • Studyporals / Mastersportal BUV • 학비 비교 Vietnamese source: dienthoaivui.com.vn (2026.04.23)]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에이스쿡(Acecook)의 베트남 라면 시장30년 생존 방식

라면 소비 세계 1위 나라, 하오하오 한 봉지 250원, 점유율 40%

베트남 사람들은 라면을 얼마나 먹을까.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81개다. 세계 1위다. 한국(79.2개)도, 일본(47개)도, 중국(31개)도 베트남 보다 적다. 인구 1억명이 1년에 81억개를 소비하는 나라. 그 시장의 40%를 한 기업이 30년간 지배해왔다. 일본 투자 기업 에이스쿡(Acecook Vietnam)이다. 하오하오(Hào Hào) 한 봉지 가격은 4,500동, 한국 돈으로 250원. 이 250원짜리 제품이 어떻게 베트남 국민 라면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베트남 라면 소비 (2024년 · WINA 공식)	에이스쿡 시장점 유율 (2024년·판매량 기준)	에이스쿡 2023년 매출	하오하오가격 (대표 제품 · 1봉)
81억개/년 1인당 81개 세계 1위 세계 4위 소비 규모 (中→인도네시아→ 인도→베트남)	약 40% 33억개 이상 판매 WINA·Vietnam.vn 공식 확인 매출 기준: 35.4%(RetailData)	약 15조동 약 8,358억원 2022년 14조동 대비 +7% 2027년까지 공장 2개 추가 계획	4,500동 약 250원 베트남 내 판매 1위 2021년까지 누적 300억봉 판매

▶ 베트남 라면 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매출 기준 · RetailData / 2024년)

에이스쿡 (Acecook)	35.4%	하오하오·데냐얏(퍼)·러우타이·푸흐영(분)
마산 (Masan Consumer)	27.9%	오마치(Omachi)·코코미(Kokomi)
유니벤 (Uniben)	12.2%	3미엔(3 Miền)·3미엔골드
아시아푸드 (Asia Foods)	8.0%	가우도(Gấu Đỏ·빨간곰)
비폰 (VIFON)	약 5%	비폰 레거시·수출 특화
기타 (닛신·농심·삼양 등)	약 12%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① 베트남 라면 시장 - 세계 1위 소비국의 민낯

세계라면협회(WINA)가 발표하는 국가별 소비 통계에서 베트남은 1인당 소비량 기준 세계 1위다. 2024년 1인당 81개로, 근소하게 앞서다가 확실히 1위로 자리 잡았다. 총 소비량은 약 81억~82억개로 중국(438억개)·인도네시아(147억개)·인도(83억개)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억명을 고려하면 1인당 소비는 압도적 세계 1위다.

시장 규모는 즉석면(인스턴트 누들) 단품 기준 약 42억9,000만달러(약 6조2,720억원·2024년)이며, 국수류 전체를 포함하면 약 56억8,000만달러로 확대된다. 2026~203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6.5~7.0%로 전망된다. 현재 약 50개 업체가 경쟁 중이다. 도시 인구 비율이 약 39%(2024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 가구가 65% 이상인 시장이다.

베트남 라면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가격 민감성이 높다. 4,000~5,000동(220~280원)대 제품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며 가격이 구매 결정의 핵심 변수다. 둘째, 쌀국수 문화와의 경쟁이 내재돼 있다. 베트남은 쌀국수(퍼·Phở)·분(Bún)·미(Mì) 등 국수 문화가 매우 발달해 즉석면은 이 문화 위에 올라타 성장했다. 셋째, 코로나 이후 프리미엄화가 가속됐다. 5,000~15,000동(280원~840원)대 제품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30~50%에 달하며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화 경쟁이 치열해졌다.

② 에이스쿡 베트남 30년사 - 합작에서 시장 지배까지



에이스쿡 베트남의 역사는 1993년 12월 15일에 시작된다. 설립 당시 이름은 "비폰-에이스쿡(Vifon Acecook)"이었다. 베트남 국영 식품기업 비폰(VIFON)이 40%, 일본 에이스쿡 본사가 60%를 출자한 합작 형태였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자본의 식품산업 진출에 문을 여는 시기였고, 에이스쿡은 그 첫 번째 파트너로 비폰을 선택했다.

1995년 7월 7일, 첫 번째 제품이 출시됐다. 그 제품이 지금도 시장 1위를 달리는 하오하오(Hào Hào·"아주 좋다"는 뜻)다. 출시 직후 폭발적 반응이 왔다. 가격 경쟁력(당시 기준 저가), 일본식 품질 관리, 베트남인 입맛에 최적화된 새콤매콤 쉬림프 맛이 맞아떨어졌다. 비폰은 합작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하오하오 출시 2년 만에 지분을 매각했다. 2004년 사명을 에이스쿡 베트남 유한회사로 변경, 2008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현재 주주 구조는 에이스쿡 재팬(일본 본사) 56.64%, 마루베니푸드(일본 종합상사 계열) 일부, 호앙 까오 찌(Hoàng Cao Trí·베트남인·에이스쿡 베트남 부사장) 25% 이상이다. 호앙 까오 찌는 월급쟁이 임원이면서도 25% 지분으로 베트남 내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오하오 봉지에 담긴 그의 지분 가치는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역량 구분	세부 내용	출처 · 확인
공장 · 생산 인프라	전국 11개 공장·7개 지사 생산라인 자동화율 90%+ 분당 600봉 처리 (라인당)	Vietnam.vn·APEA 2024 (2023년 기준 확인)
판매 · 유통 네트워크	전국 160,000개 이상 판매 거점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Acecook Vietnam 공식 30주년 발표 (2025.07)
브랜드 포트폴리오	라면·쌀국수·분 등 수백 가지 맛 하오하오(라면)·데나얏(피)·넙속·향응아(쌀국수)·푸호영(분)	APEA 수상 기록 (2024) Vietnam.vn 확인
수출	40개국 이상 수출 EU·미국·일본·호주 포함 엄격한 시장도 진입	APEA 2024·Vietnam.vn
직원	약 6,200명 (2023년 기준)	APEA 2024
주요 수상·인증	베트남 탑10 브랜드 (2023) 아시아태평양 기업 우수상(APEA) 2024 베트남 U22 국가대표팀 공식 스폰서	Vietnam.vn·APEA 2024

③ 경쟁 구도 - 마산 오마치의 프리미엄 공세와 수입 한국 라면의 도전

에이스쿡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마산 컨슈머(Masan Consumer)다. 2007년 라면 시장에 진입한 마산은 오마치(Omachi)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판도를 흔들었다. 오마치의 핵심 차별화는 "감자 면발"이다.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기지 않아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가격은 5,000~12,000동으로 하오하오보다 비싸지만 도시 중산층·젊은층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다. 마산의 시장 점유율은 약 27.9%로 에이스쿡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농촌 시장에서는 유니벤(Uniben)의 3미엔(3 Miền)이 강하다. 칸타 월드패널(Kantar Worldpanel) 조사에서 3미엔은 농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26% 이상의 농촌 점유율을 보인다. 도시에서 에이스쿡이 강하고 농촌에서 3미엔이 강한 지역 분화가 뚜렷하다. 아시아푸드의 가우도(Cầu Đò·빨간곰)는 가격 대비 분량으로 경쟁하는 포지셔닝이다.

수입 한국 라면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농심 신라면·삼양 불닭볶음면·오뚜기 진라면 등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10,000동(560원) 이상의 프리미엄가에 판매된다. K-드라마·K-팝 열풍이 한국 라면 소비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불닭볶음면은 SNS 챌린지를 통해 MZ세대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수입 라면 전체 시장 비중은 아직 10% 내외로, 로컬 브랜드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한 가지 주목할 변화는 EU가 2024~2025년 사이 베트남 라면을 강화 식품안전 통제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다. 에이스쿡 등 베트남 라면 업체들의 유럽 수출이 큰 폭

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④ 에이스쿡의 미래 비전 - "지속 가능한 세계급 종합 식품 공급자"

2025년 7월 7일, 에이스쿡 베트남은 첫 제품 출시 30주년을 맞아 새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슬로건은 "혁신을 통한 행복 조리(Cook Happiness Through Innovation)".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세계급 종합 식품 공급자(Sustainable, World-class Comprehensive Food Supplier)"로의 전환이다.

이 전략에서 "종합 식품"이 핵심 키워드다. 라면만 파는 회사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에이스쿡이 제시한 세 가지 확장 방향이 있다. 첫째, 라면 이외 식품 라인업 강화다. 간편 수프(칸리·Kanli), 볶음밥 시즈닝(랑랑·Rang Rang), 프리미엄 즉석 피자까지 라면 외 카테고리로 영역을 넓힌다. 둘째, 건강·기능성 강화다. 하오하오에 칼슘 첨가, 푸호영 당면에 비타민B12 첨가, 실제 고기와 채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다. 셋째, 글로벌 수출 확대다. 현재 40개국 이상 수출에서 더 나아가 40개국의 깊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 능력도 계속 확장한다. 현재 11개 공장에서 2027년까지 2개 공장을 추가해 총 13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유통도 160,000개 이상의 거점에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접 국가인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로의 수출도 성장 경로다.

★ 편집부 평가-250원짜리 라면으로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방식

에이스쿡의 30년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베트남 식품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성된 교과서다. 비폰과의 합작, 하오하오 단일 제품으로 시장 장악, 11개 공장과 160,000개 유통망 구축, 이순서가 30년이다.

그런데 지금 에이스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마산의 프리미엄 공세, 삼양 불닭의 SNS 침투,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의식 변화, 원재료(밀·팜유) 가격 불안, 40% 점유율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에이스쿡의 30주년 선언("세계급 종합 식품 공급자")이 맞는 방향인지는 몇 년 더 지켜봐야 한다. 핵심은 하오하오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프리미엄과 다각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다. 한국 식품·유통 기업들에게 에이스쿡의 사례는 진입 공식을 보여준다. 저가로 시장을 먼저 장악하고, 브랜드 신뢰를 쌓은 뒤,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올라가는 것. 베트남 시장에서 이 공식을 먼저 쓴 쪽이 항상 이겼다.

[출처(수치 검증): 세계라면협회(WINA) 2024 통계·Vietnam.vn 에이스쿡 30주년 (2025.07)·닛케이아시아 "Japan's Acecook grabs 40% of Vietnam's instant noodle market" (2024.09.10)·APEA 아시아태평양기업우수상 에이스쿡 부문 (2024)·RetailData 시장점유율·Wiley Online Library (2025.11)·Acecook Vietnam 공식 웹사이트(acecookvietnam.vn)·Databridgemarketresearch 시장 규모 (2024)

※ 시장점유율 출처별 차이: 판매량 기준(WINA·에이스쿡 자체) ≈40% / 매출 기준(RetailData) 35.4% / 도시·농촌 포함 전국 기준(VietnamCredit) 43% -이 기사는 판매량 기준 40%를 채택함

팍슨(Parkson)의 18년 - 베트남 쇼핑 문화의 오판 백화점은 왜 실패했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사는가

2005년 호찌민시 1군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팍슨(Parkson)은 자신감이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백화점 체인, 베트남 최초의 국제급 백화점, 새로운 소비 시대를 이끌 선봉이라는 자부심이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2023년 4월 28일, 팍슨 베트남은 호찌민시 법원에 자발적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지막 한 곳까지 문을 닫으며 완전 철수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팍슨 베트남 입. 퇴점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규모(2025)	틱톡숍 성장률 (2025 H1)	라이브 스트림 쇼핑 참여율
2005년 진입 2023년 파산 철수 18년간 호찌민·하노이· 하이퐁 최대 8개 매장 → 전부 폐점	\$260억~280억 (전체 소매 약 10%) 소매+틱톡숍 2026 상반기 합산 \$106억 (총판 매액)	총판매액 +148% 시장점유 44% 소매 53% → 44% 로 추격 "쇼퍼테인먼트" 시대 개막	63% 베트남 소비자 쇼퍼라이브·틱 톡숍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쇼핑 결합

① 팍슨은 왜 실패했나 - 4가지 구조적 오판

【오판 1: 베트남 소비자를 중산층으로 봤다】 팍슨이 진입한 2005년, 베트남 1인당 GDP는 약 700달러였다. 팍슨의 포지셔닝은 고급·프리미엄이었다. 백화점 내 브랜드들은 베트남 일반 소비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였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사는 사람들은 적었다. 팍슨은 아직 오지 않은 중산층을 기다리며 18년을 버텼지만, 중산층이 성장했을 때는 이미 더 편리한 쇼핑 채널이 생겨있었다.

【오판 2: 베트남 쇼핑 문화를 몰랐다】 베트남 소비자는 백화점식 정가 쇼핑에 익숙하지 않다. 재래시장·노점·편의점에서 흥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다. 백화점의 핵심 가치인 "원스톱·고품질·고서비스"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필수가 아니었다. 특히 백화점은 에어컨·깨끗한 화장실·고급 분위기를 팔지만 베트남에서는 이것이 쇼핑몰(Vincom, Aeon)과 편의점(Circle K, GS25)이 이미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오판 3: 임대료와 운영 비용 관리 실패】 팍슨은 고급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감수했다. 2022년 FY기준 팍슨 베트남의 매출은 싱가포르달러 240만(약 24억원)으로 전년 1,010만달러에서 76% 폭락했다. 반면 임대료는 코로나 봉쇄 기간에도 건물주는 임대료 감면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 "팍슨 베트남의 파산은 코로나보다 건물주의 비협조가 결정타였다"는 것이 팍슨 모회사(Parkson Retail Asia)의 공식 입장이다.

【오판 4: 경쟁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 2010년대 빈컴(Vincom) 쇼핑몰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팍슨의 자리를 직접 빼앗았다. 맞은편 빈컴센터가 붐비는 동안 팍슨 사이공투어리스트플라자는 텅 빈 상태가 이어졌다. 그리고 2015년 이후 Lazada·Shopee가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백화점을 직접 대체하기 시작했다. 팍슨이 마지막 매장을 닫을 무렵, 그 자리는 유니클로와 무지(MUJI)가 채웠다.

② 베트남 사람들의 쇼핑 문화 - 5가지 특징

【①가격 민감·흥정 문화】 베트남 소비자는 가격을 먼저 비교한다. 재래시장(짜·Chợ)에서 흥정하는 것이 문화적 DNA다. 이 성향이 이커머스의 쿠폰·할인·플래시세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정가 백화점은 이 문화와 충돌한다.

【②소셜·라이브 쇼핑】 63%의 베트남 소비자가 라이브스트림 쇼핑에 참여한다. 셀러가 실시간으로 제품을 보여주고 흥정하며 파는 틱톡숍 라이브는 재래시장의 디지털판이다. 구경하다 즉흥 구매"하는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어졌다.

【③오토바이 기반 빠른 배송 선호】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생활의 기본이다. 그랩(Grab)·쉽피(ShipChung) 등 당일·1시간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백화점에 가서 들고 올 이유가 없다. 온라인 주문 후 배달이 백화점 방문보다 훨씬 편하다.

【④경험·외식형 쇼핑물 선호】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식당+영화를 합친 복합 쇼핑몰(Vincom, AEON, SC VivoCity)에는 사람이 모인다. 주말 가족 나들이 목적지는 백화점이 아닌 쇼핑몰이다. 백화점의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의 진화가 성공한 것이다.

【⑤신뢰 브랜드·공식 채널 선호 증가】 이커머스 내에서도 변화가 있다. 2026년 상반기 소매·틱톡숍의 공식 몰(Mall) 매출이 54% 급증했다. 가품 논란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공식 인증 브랜드 채널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브랜드 신뢰 기반의 오프라인 매장에도 새로운 기회다.

③ 지금 베트남 쇼핑의 실제 판도 - 이커머스 듀오폐리 시대

2026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소매+틱톡숍 양강 구도다. 2025년 5월~2026년 4월 기준 4대 플랫폼(소매·틱톡숍·라자다·티키) 합산 총거래액이 \$136억(전년 대비 +37%)이다. 소매가 53%(총거래액 \$72.9억), 틱톡숍이 44%(총거래액 \$59.6억·+83%)다. 라자다·티키는 급속 하락 중이다.

틱톡숍의 폭발적 성장이 핵심 트렌드다.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라이브스트림·숏폼 영상으로 쇼핑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는 것"이 틱톡숍의 무기다. 특히 MZ세대(18~24세)에게 틱톡숍은 단순 쇼핑 채널이 아닌 취향과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2026년 상반기 식료품·생필품의 온라인 이동이 두드러졌다. 과거에는 생필품은 오프라인에서 산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걀·유제품까지 쇼퍼로 시킨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이 죽은 것은 아니다. 빈컴(Vincom) 쇼핑몰은 성장 중이다. AEON(일본)·롯데마트·이마트가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았다. 공통점은 하나다. 와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 마트는 신선식품, 복합몰은 외식·영화·체험, 전문점은 브랜드 경험. 이 세 가지가 없는 순수 백화점은 설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출처: The Investor "Parkson Vietnam files for bankruptcy" (2023.04.28) • The Edge Malaysia Parkson 파산 보도 (2023.04.27) • VIR "Parkson shutdown signals full retreat" (2018.10) • RetailNews Asia "Parkson to give up full-scale stores" (2020.07) • Q&Me Vietnam E-commerce Market Report 2026 (2026.06) • TGM Research Vietnam E-commerce Insights 2025 • China Briefing "Vietnam E-commerce Sector 2026" • Vietnam Briefing "Vietnam E-Commerce Sector Outlook 2026" • Cimigo "TikTok vs Shopee" (2025.10) • Mordor Intelligence Vietnam E-commerce 2025-2026]

므엉(Mường)족 - 약초로 살고 약초로 고쳤다

하노이 남서쪽 70km, 호아빈 산골짜기 사람들과 김보이 광천수 이야기

하노이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두 시간쯤 달리면 호아빈(Hòa Bình)성 산골짜기가 시작된다. 구불구불한 산길 옆으로 고상 가옥이 보이고, 논 옆에 쪽빛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일한다. 므엉(Mường)족이다. 베트남 네 번째 소수민족으로 인구 약 145만2,000명. 브리태니커는 이들을 "고대 베트남인의 유일한 현존 후손"이라 부른다. 평야로 내려간 이들이 킨족이 됐고, 산에 남은 이들이 므엉족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베트남 고유 문화의 살아있는 흔적이다.

① 므엉(Mường)족 - 베트남에서 가장 고유한 소수민족



므엉족 문화의 네 가지 핵심이 있다. 첫째, 모 므엉(Mo Mường)이라 불리는 구비 서사시다. 장례 때 모 사제가 밤새워 낭송하는 천지창조 이야기로 므엉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둘째, 치엥(Chiêng•눗쇠 징) 합주다. 므엉 여성들이 크기 다른 징 여러 개로 합주하며 모든 공동체 행사에 올린다. 셋째, 고상 가옥(Nhà Sàn•냐산)이다. 지면에서 높이 올린 나무•대나무 가옥으로 아래층엔 가축을, 위층엔 사람이 산다. 넷째, 껌람(Com Lam•대나무 통밥)과 루어우칸(Rượu Cần•대나무 빨대 막걸리) 음식 문화다.

호아빈성에는 4대 므엉 지역이 있다. 므엉 비(편락군)•므엉 방(락썬군)•므엉 탕(까오폭군)•므엉 동(김보이군)이다. 이 중 김보이군이 천연 광천온천으로 유명하며 약초 치유와 온천을 결합한 체험의 중심지다.



▶ 호아빈성 4대 므엉 지역

므엉 지역	행정구역	특징	하노이 거리
므엉 비 (Mường Bi)	편락 (Tân Lạc)군	최대 므엉 지역. 고상 가옥 마을	약 120km (2.5시간)
므엉 방 (Mường Vang)	락썬 (Lạc Sơn)군	모 므엉 에픽 전통. 치엥 연주 중심	약 140km (3시간)
므엉 탕 (Mường Thàng)	까오폭 (Cao Phong)군	감귤•사탕수수 재배지. 전통 마켓	약 80km (1.5시간)
므엉 동 (Mường Động)	김보이 (Kim Bôi)군	★ 김보이 광천온천. 약초탕 체험	약 70km (1.5시간)

② 므엉족의 약초 치유 — 달이고 찌고 씻고 붙이는 여섯 가지 방식

므엉족의 민간 약초 치유는 입욕 하나에 집중된 다오도족과 달리 여섯 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조합한다. 바오호아빈 현지 취재와 흥득대학교(2021) 학술 연구가 정리한 이 여섯 방식은 썩(Śắc•달임)•쑹(Xông•스팀)•뜸(Tắm•탕)•덥(Đắp•습포)•보이(Bôi•도포)•뇨우루어우(Ngâm Rượu•약주)다. 같은 약초도 방식에 따라 다른 효능을 내는 이 유연성이 수백 년을 살아남은 힘이다.



감기에는 레몬그라스•쑹•포멜로 껍질•생강을 끓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스팀(쑹)을 쐬다. 관절통에는 인도뿔나무(뇨우)를 약주(뇨우루어우)로 담가 매일 마신다. 골절에는 약초 뿌리를 찢어 붙인다(덥). 피부병에는 즙을 바른다(보이). 산후 회복에는 약초탕(뜸)과 스팀(쑹)을 며칠간 번갈아 받는다. 한 증상에 한 방법이 아닌 상황에 따른 복합 적용이 므엉식이다.

특히 므엉족 여성의 산후 약초 치유가 독특하다. 출산 후 며칠간 약초 스팀(쑹)과 약초탕(뜸)을 번갈아 받는다. 몸 안의 냉기(풍•Phong)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목적이다. 레몬그라스•쑹•생강•계피 등 온열성 약초가 주재료다. 이 지식은 어머니에서 딸에게 말로 전해진다. 기록이 아닌 몸으로 이어지는 지혜다.

③ 김보이(Kim Bôi) 광천온천 — 므엉족 땅의 자연 치유 선물

김보이 광천온천은 호아빈성 김보이군 하카이 마을에서 솟아나는 천연 광천수다. 수온이 34~36°C로 베트남에서 가장 온화한 온천에 속한다. 뜨겁지 않아 장시간 입욕이 가능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광천수 성분 분석 결과 칼슘•리튬•라듐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적 검증에서 식수와 입욕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현지 므엉족은 예로부터 이 물이 류머티즘•장 질환•위장병•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다. 현대 의학의 미네랄 수치료(Balneotherapy) 연구에서도 온천수 입욕이 류머티즘•관절 증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꾸준히 쌓이고 있다. 므엉 전통에서 김보이 온천은 약초탕(뜸)•약초 스팀(쑹)과 복합으로 쓰였다. 온천욕 후 약초 스팀으로 마무리하거나, 약초탕 전 온천으로 몸을 예열하는 방식이다.

현재 김보이 지역에는 로컬 입욕 시설부터 중급 리조트까지 다양한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하노이에서 약 70km로 가깝고 비용도 로컬 기준 5만~15만동(약 2,800~8,400원)으로 저렴해 현지인 주말 힐링 여행지로 꾸준한 인기를 누린다.

므엉족 약초 힐링 체험 - 실전 가이드

위치: 호아빈(Hòa Bình)성 김보이(Kim Bôi)군. 하노이 미딘(Mỹ Đình) 버스터미널에서 호아빈 행 버스(약 1.5시간) → 김보이까지 추가 30분.

비용: 로컬 온천 입욕 5만~15만동(약 2,800~8,400원) / 약초탕 포함 리조트 패키지 30만~50만동(약 1만6,800~2만8,000원)

최적 시기: 10월~3월 (서늘한 기온에 스팀•온천 효과 극대화). 여름은 더워 온열 치료 효과 반감.

추천 코스: 므엉 고상 가옥 마을 방문•치엥 공연 관람 → 껌람•틔주아 점심 → 김보이 광천온천 입욕 → 므엉 약초 스팀(쑹) 또는 약초탕(뜸)으로 마무리

약초 스팀(쑹)은 15~20분 이내 권장. 김보이 온천은 수온이 낮아 장시간 입욕 가능하나 혈압이 높거나 임신부는 사전 확인 필요.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 Muong 항목 • Nhân Dân Online "Exploring Muong Culture in Hoa Binh" (2024.04) • VNA Special "Muong ethnic group" • 흥득대학(VJOL) "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 of Muong and Thai people in Thanh Hoa" (2021) • 바오호아빈(Báo Hòa Bình) "Thuốc Nam trong đời sống người Mường" • Vietnam Paradise Travel "Top 5 Hot Springs" • Phongnhaviet.com "Vietnam Natural Hot Springs" (2025.05) • Volotour "Exploring Mường ethnic group" (2024.12)]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 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 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

